

분류	미션홈
제목	개인화 소통
성경	빌립보서 1:6
일시	2012년 1월 31일
장소	렘넌트 신학교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 (빌립보서 1:6)

0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녹취 자료 ◆

◆서론

▶오늘부터 치유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질문 가운데 영적 대물림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그건 다음 달에 하겠다.

오늘 눈이 오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다.

▶하나님과 소통의 결론이다. 개인 소통이 아니다. 개인화 되는 소통이다. 꼭 기억해야 한다.

미션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다.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알던 제자를 만났다. 그런데 힘이 다 빠져 있었다. 힘이 빠졌는데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다. 특히 목사님 문제였다. 그 친구에게 답을 줬다. 굉장히 책망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알지 않느냐. 당신은 내 제자다. 전도현장에 같이 가지 않았다.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 치료 받고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적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다. 기도하면 될 게 아니냐?

틀린 생각- 많은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 동조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다. 많은 여자들은 우리가 눈물 날 때에 같이 눈물 흘려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영적 문제가 더 온다. 위로는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말을 들어야 한다. 종교사기꾼이란 말을 써본 적이 있다.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자꾸 틀리게 생각하게끔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에 와보란 말도 필요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심하면 우리 교회와봐라, 나에게 와봐라. 종교 사기꾼이다.

1.개인화의 비밀

▶개인화의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 제자로 서는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르쳐줘야 한다. 어떤 경우도 혼자서 일어지지 못하면 개인화가 된 게 아니다. 제자가 된 게 아니다. 혼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게 개인화다.

(1)요19:30

▶그러려고 하면 요19:30,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 이것을 찾게 해야 한다. 수두룩하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무너져있다. 우리가 가진 메시지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2)지속하는 방법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을 지속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보거나 응답을 보면서 다 끝낸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정복(권세)

▶드디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보고 권세라고 한다. 이게 신분과 권세다. 이것은 신분이면 이것은 권세인데 이것은 과정이다.

2.구분 할 것

▶단, 참고할 게 있다. 개인화 시킬 때 구분할 것이 있다.

(1)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과

(2)큰 질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확립될 때까지 매일 접촉해야 한다.

(3)렘넌트와

(4)엘리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접촉하면 안 된다. 적절한 시간표를 가지고 알려줘야 한다. 이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적 문제가 왔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매일 가서 확립시켜야 한다. 물론 엘리트 가운데에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많다. 이 구분을 잘 해야 한다.

(5)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 문제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는 다닌다. 이런 사람은 꾸준히 기다리면서 행13:48에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신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참고하면 이것으로 끝난다.

▶간혹 이단을 따라가는 이유는 매일 해주기 때문이다. 무엇 때

문에 교회버리고 가는 줄 아는가? 이거 해준다. 남묘호렌케교로 가는 이유, 이거 해준다. 외국에 꼭 갔다. 빨리 깨워야 한다. 부교역자들은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너무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교인을 개인화시켜야 한다.

3.어느 정도 개인화시켜야 하는가?

▶어느 정도 개인화시켜야 하는가? 빌1:6.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다.

(1)과거- 발판

▶그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도록 만들어라.

(2)일- 과정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줘라.

(3)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든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개인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찾아오면 싫다. 나보고 확립시키러 온다고 하면 싫다. 원래부터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그때부터 계속 응답을 받았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다. 꼭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속인이 왔다면 저를 찾아가야 한다. 굿하던 체질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많은 부교역자, 귀중하게 써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구역관리는 기본이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다. 개인화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부교역자가 파트별로 중요하다. 그래서 중직자가 하면 더 좋은 것이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되어질 때 영적 상태, 영적 성취, 영적 소통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결론

▶이렇게 되어질 때 개인적으로 은혜 받던 사람들이 이런 결론이 나온다.

(1)교회 영적 소통

▶전 교회와 영적 소통이 된다. 이 사람에게 참 평안이 일어난다.

(2)전 세계 영적 소통

▶말을 안 해도 전 세계와 영적 소통을 하게 된다. 제가 미국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다. 저하고 진짜 전도로 소통되는 1순위의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 있다. 미국이 희망이 있다. 전혀 내가 도와주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메시지로 통한다. 그리고 매일 전도한다. 그리고 성공한 상태다. 그 희망 갖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중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3)후대 영적 소통

▶그리고 여러분이 전 후대들과 렘넌트들과 영적 소통이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완성이다.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www.jcking.net ②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